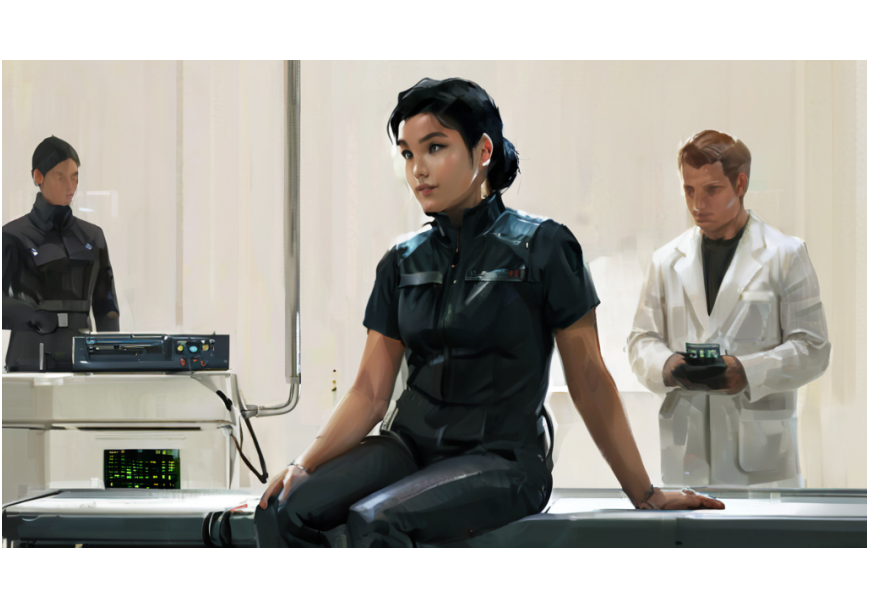
6-Episode Seasonal Series

SOULRIDE

LAHOE HYUN AND THE MANTA STORY

EPISODE 15

❖



"백호 자네인가?"

소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대원 하나가 황급하게 소리쳤다.

"소연의 의식 수치가 5퍼센트입니다! 소연의 의식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태웅이 다급하게 재호를 보며 말했다.

"원장님! 어서 트랜스퍼를!"

재호가 난감한 표정으로 말했다.

"백호! 거기 남아주게, 할 말이 많아!"
"1퍼센트 남았습니다!"
"원장님!"

재호는 궁지에 몰린 표정으로 간신히 입을 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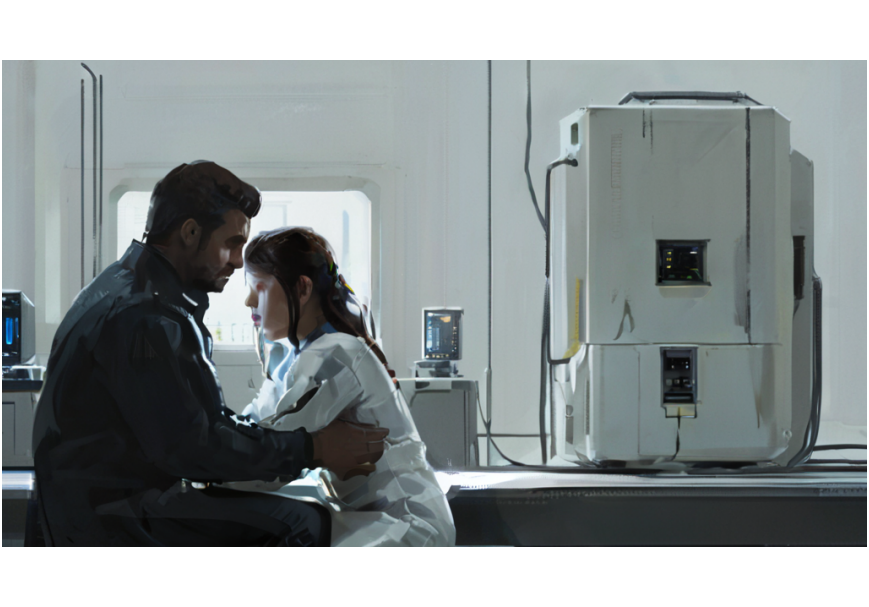
"트랜스퍼 실시!"

명령을 기다리고 있던 대원이 신속하게 장치를 조작하자, 동념의 몸으로 의식이 트랜스퍼 되기 시작했다. 재호와 태웅이 잔뜩 긴장한 채 지켜보고 있다, 트랜스퍼가 끝났다는 신호가 뜨자 태웅이 소연에게 달려가 흔들어 깨우기 시작했다.

"엄마! 엄마! 안 돼요! 소연아! 소연아!!"

소연의 눈이 뜨이더니, 태웅을 보며 끌어 안았다.

"태웅아, 태웅아! 엄마야…!"
"엄마! 고마워요… 소연아… 고마워…!"



태웅이 소연을 껴안고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 재호가 동념의 몸 앞으로 다가가자 동념의 눈이 번쩍 뜨였다. 재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백호, 자네인가?"
"네? 원장님… 저 동념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재호가 낙심하는 가운데, 동념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이때 갑자기 동념의 표정이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머리를 감싸고 고통 받는 듯한 동념의 모습에 놀란 재호가 소리쳤다.

"백호, 백호! 어서 나와주게, 백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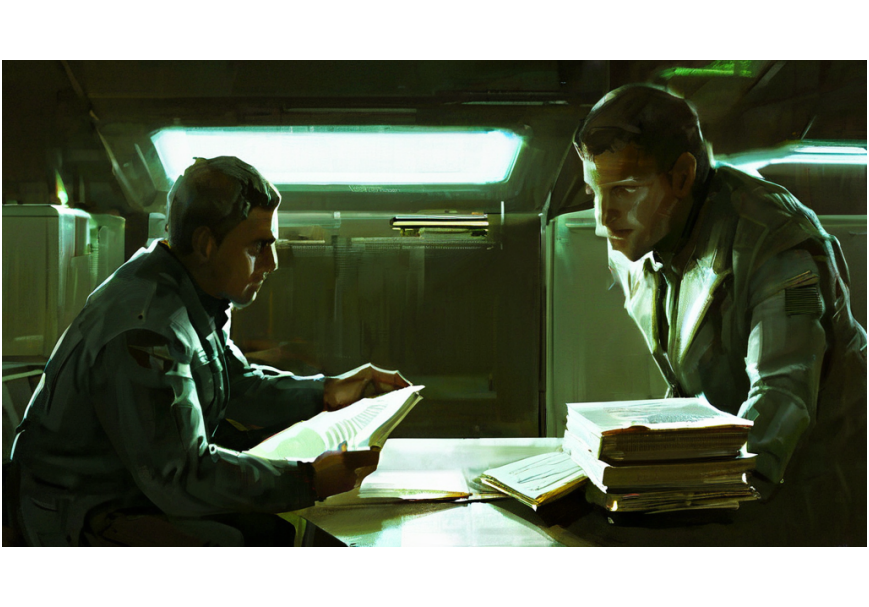
머리를 감싼 채 비명을 지르던 동념은 이내 고통이 잦아들었는지 비명소리도 잦아들더니, 눈빛이 돌변했다. 그 눈빛은 동념이 아닌 분명한 백호의 것이었다. 동념, 아니 백호가 재호를 향해 미소를 지었다.

"생각보다 쉽지 않구만… 재호."
"백호! 고맙네! 고마워!"

재호가 백호를 끌어안으며 소리쳤다.

❖

동념의 몸에서 깨어난 백호는 재호의 사무실에 앉아 백호의 과거 자료들을 살피고 있고, 재호는 백호가 확인하면 좋을 여러 자료들을 백호에게 건네주고 있었다. 소연과 태웅은 이들의 자리에 동석했지만,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진 못하는 눈치였다.



"그때 내가 소연을 마지막으로 클론하고 서창이 나를 죽였을 때, 소연을 바로 캡슐에서 빼내었나?"
"그랬었지. 캡슐에서 더 이상 뭘 해야 할 지 알 수가 없어서 바로 꺼내어 생활을 시켰어."
"그때 소연의 바이탈 에이지는?"
"8살. 태웅과 거의 같은 나이였네. 소연에겐 기억이 주입되지 않은 거라 생각했고, 태웅과 친구로 지금까지 쭉 커왔던 거야."

소연은 그제야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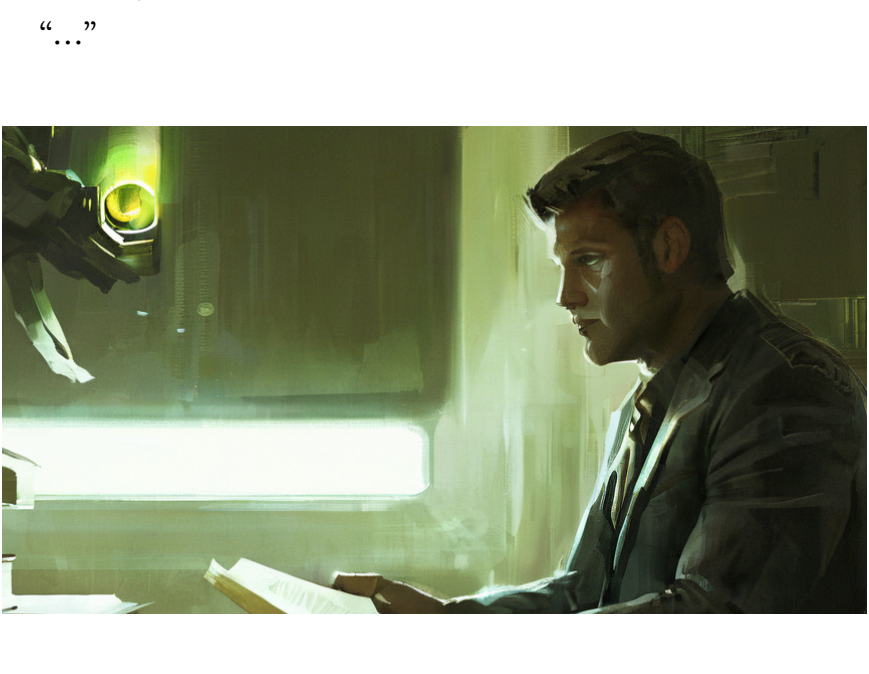
"백호는 지금 제 기억의 얼굴과는 많이 다른데 그건 왜 그런 거죠, 원장님?"

문득 질문해야 할 상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소연이 고개를 돌려 백호를 바라보며 말했다.

"아니, 백호… 당신에게 직접 물어야 하나?"
"글쎄. 내가 나를 클론하는 과정에서 신체 조작도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조작할 거면 좀 잘하지, 썩 마음에 드는 몸은 아닌데."

태웅은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 질문했다.

"그럼 동념을 클론한 것은 누구입니까? 네모입니까, 당신입니까?"
"태웅이 너는 나를 결코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군."
"…"



태웅은 대답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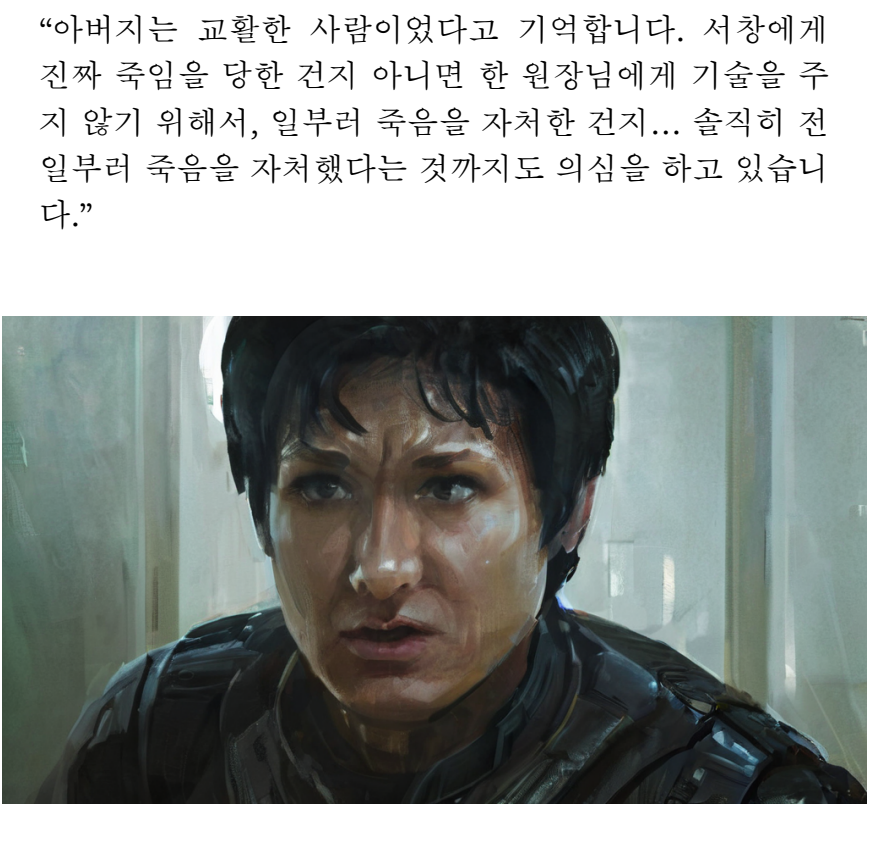
"글쎄. 나도 내가 나를 클론한 건지 아니면 서창이 나를 죽이고 클론한 건지 모르겠는데, 내 기억 데이터에도 그 부분은 없었나?"
"일단 모든 기억이 살아난 걸로 잡히는데, 자네가 소연 클론을 완성한 날 무얼 어떻게 했는지, 그 기억만 없어."
"네모가 그것도 막아놓은 걸까요?"

태웅이 끼어들었다.

"그런데 이렇게 어머니의 기억과 동념, 아니 백호 당신의 기억이 서로 맞물려야 풀리게 하는 건 네모가 했을 거 같지 않아요. 그리고 완벽한 클론인 동념을 만들 기술을 네모가 가졌다면 이미 그들이 먼저 클론을 했을 텐데 그렇지 못한 걸 보아도… 저는 동념을 클론한 건 백호 당신일 것 같습니다."

재호가 대답했다.

"하지만 태웅아, 백호는 소연의 클론을 완성한 날 서창에게 죽임을 당했어. 내가 아는 한 백호 스스로를 다시 클론할 시간은 없었다."
"아버지는 교활한 사람이었다고 기억합니다. 서창에게 진짜 죽임을 당한 건지 아니면 한 원장님에게 기술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죽음을 자처한 건지… 솔직히 전 일부러 죽음을 자처했다는 것까지도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백호가 매서운 눈빛으로 태웅을 노려보았다. 당황한 재호가 백호의 눈치를 보며 말했다.

"태웅아, 너의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건 너무 지나친 억측 같다."
"아뇨, 자식을 실험의 도구로만 생각하고, 자기 아내에게 자식을 죽이는 일을 반복시켰던 사람을 전 신뢰할 수 없습니다."

태웅의 시선이 백호를 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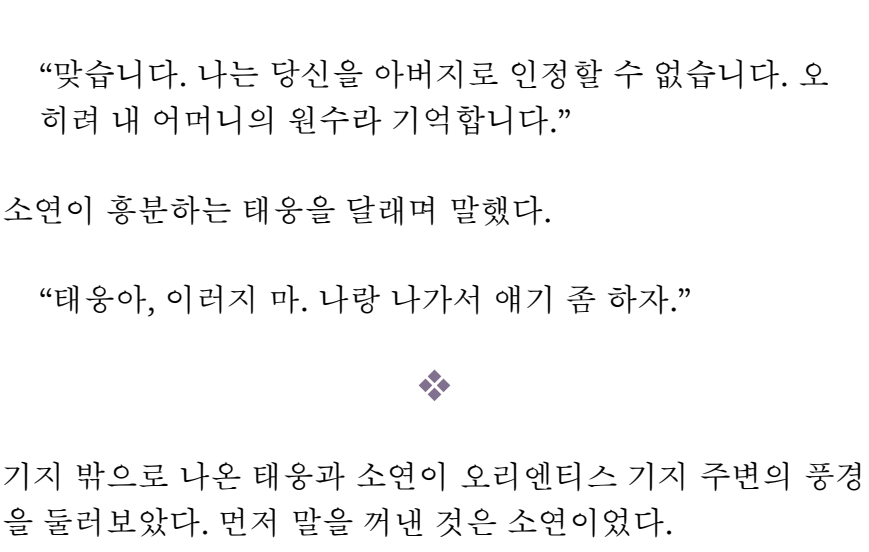
"맞습니다. 나는 당신을 아버지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내 어머니의 원수라 기억합니다."

소연이 흥분하는 태웅을 달래며 말했다.

"태웅아, 이러지 마. 나랑 나가서 얘기 좀 하자."

❖

기지 밖으로 나온 태웅과 소연이 오리엔티스 기지 주변의 풍경을 둘러보았다. 먼저 말을 꺼낸 것은 소연이었다.



"나는 태웅이 널 좋아했는데…"
"…"
"그게 내 무의식의 모성애 때문이었나 생각하면 뭔가 억울하기도 하고 미칠 것 같기도 하고…"
"…"
"남자로서 늘 너를 안고 싶어 했는데 항상 거리감을 두는 너를 보며 괴로워했던 기억들이 나를 뭐랄까 발가벗기는 기분이랄까…"
"…"

소연은 머뭇거리다 말했다.

"나도 잘 모르겠어… 너와 친구처럼 자란 기억도 그대로 있고, 너를 키운 기억도 새록새록 생각이 나서."
"나도 놀라고 혼란스러워요. 당신이 내 어머니의 클론이란 걸 알면서도 당신을 사랑하는 걸 부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소연이 처음 듣는 태웅의 고백에 충격을 받은 표정을 지었다.

"나는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어머니로서인지 소연 그 자체로인지 저야말로 늘 고통 속에 방황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자리만 돌해주지 그랬어."
"어떻게요? 우린 같이 오랜 시간을 키웠는데, 갑자기 당신은 내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었을까요?"
"…"

이번에는 소연의 말문이 막혔다.

"아니면 나 그냥 너 사랑하니까 우리 사귈까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정말 당황하고도 씁쓸하네… 나는 지금에야 느끼는 거지만 태웅이 너는… 그 수많은 시간을… 혼자 슬픈의 짐을 안고 추고 있었던 거구나."
"네, 아마도요. 그것도 꽃은 구두를 신고 비가 오는 중에서 추고 있었던 거 같아요."

소연의 표정에는 눈물과 미소가 공존했다.

* * *

"이 길은 기억하나?"

재호가 좁은 통로에서 휠체어를 밀고 앞으로 나아가며 백호에게 물었다.

"물론."
"서창도 아직 기억하고 있더군."
"그래? 어떻게 알았나?"

재호는 대답 대신 휠체어를 밀었다.

❖

문이 열리자, 서창이 캣츠아이를 훔쳤던 바로 그 장소가 모습을 드러냈다. 재호가 캣츠아이가 놓여 있던 장소에 멈춰 서서 백호에게 말했다.

"지난 번에 서창이 기지를 습격해서 여기 있던 캣츠아이를 쪽 빼갔었거든."
"캣츠아이…"

백호가 혼란스러워 하는데, 재호가 그런 백호를 보며 말했다.

"자네, 지금 동념의 기억은 전혀 남아있지 않은 건가?"
"사실 좀 혼란스러운 상태야. 동념의 느낌은 잠겨 있으나 단편적인 기억밖에는…"
"동념은, 서창의 편은 아니지?"
"무슨 말인가?"
"내가 자네를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가를 묻는 거야. 내가 지금 자네를 백호라 믿어도 되는 건지."

백호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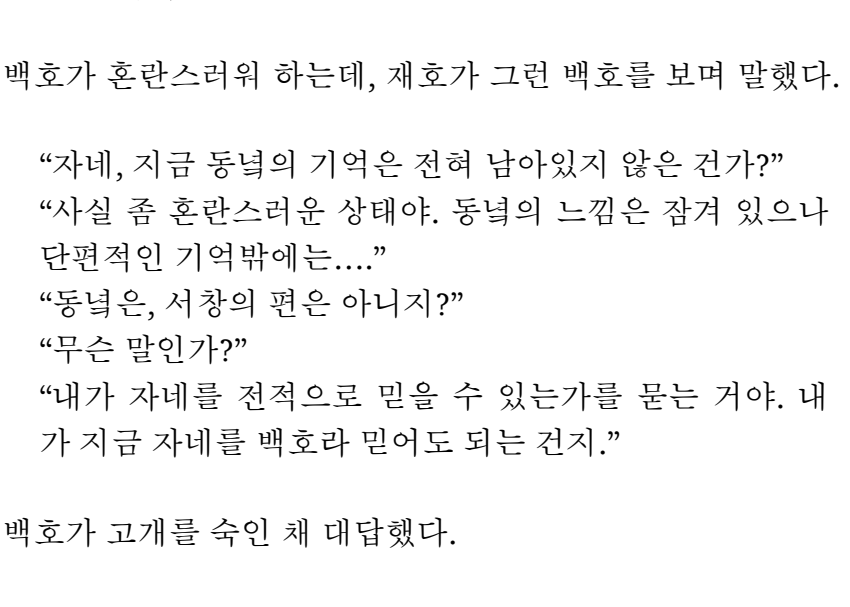
"그렇다고… 나는 생각하네."

둘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흘렀다. 재호는 백호의 눈동자를 바라보았고, 백호 또한 재호의 눈동자를 바라보았다. 한참동안 눈빛을 교환하던 재호는 마침내 무언가를 결단한 듯, 시스템에 비밀 코드를 입력했다. 갑자기 벽 한 쪽이 열리더니, 공중에 무언가가 둥둥 떠있는 것이 보였다. - 바로 캣츠아이였다.

"저것이 캣츠아이의 원본이네. 자네가 찾아냈었던."

백호, 놀란 표정으로 캣츠아이에 다가가 캣츠아이에 손을 댔다. 갑자기 백호의 머리에 쾅! 소리가 울리더니 백호의 의식 속에 다른 이미지가 끼어들었다.

❖



백호는 광활한 바다 위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어째서 바다에 빠지지 않고 서 있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 같은 것은 비오르지 않았다. 백호는 자기 앞에 문이 하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문을 열고 들어갔다.

문 안에는 새하얀 공간이 펼쳐져 있었다. 백호는 자신의 기억과 통하는 공간임을 직감했다. 이 새하얀 공간 안에는 몸을 숙여야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작은 문이 놓여 있었는데, 백호는 몸을 숙이고 들어갔다.

백호가 들어간 곳은 수술실이었다. 젊은 백호가 수술대의 소연을 응급처치하고 있었다. 수술실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문을 열고 기어 들어온 또 다른 백호의 존재를 의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수술실 안에는 더 작은 사이즈의 문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는데, 이번에는 기어서 들어가야 할 만큼 작은 문이었다. 백호는 작은 문을 열고 기어 들어갔다.

작은 문이 연결된 공간은 소연의 클론을 만든 실험실이었다. 젊은 백호가 컴퓨터 앞에 앉아 어떤 코드를 해금하는 모습이 보였다. 백호가 젊은 백호에게 다가가자 젊은 백호는 뭔가 해냈다는 듯 환호성을 지르며 실험실을 뛰쳐나갔다. 백호가 떠나간 자리에 남아있는 코드를 지켜보던 백호는 무언가를 깨달은 표정을 지었다.

❖

"백호! 자네 괜찮나? 뭐가 좀 느껴졌어? 기억이 돌아온 건가?"

백호가 캣츠아이에서 손을 떼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

소연은 자신의 방에 우두커니 앉아 램프를 켰다 껐다 반복하고 있었다.

'죽고 싶어.'

램프가 꺼졌다.

'죽고 싶어.'

램프가 켜졌다. 침착한 소연의 얼굴이 드러났다.

'죽고 싶은 이유?'

램프가 꺼졌다. 소연의 얼굴은 다시 암흑 속으로 사라졌다.

'끝을 알아버렸으니까. 아니 시작을.'

❖

소연이 정신을 차렸을 때, 그녀는 과거에 자기가 뛰어내렸던 바로 그곳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죽고 싶은 이유.'

소연은 멍하니 먼 곳을 응시했다.

'완성될 수 없는 사랑을 시작해버렸으니까.'

저 멀리서 태웅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소연! 거기서 뭐 해!"

소연은 고개를 돌렸다. 동념의 얼굴을 한 백호와 태웅이 자신을 향해 달려오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소연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교복을 입은 자신이 태웅의 볼에 입을 맞추자 태웅이 도망치듯 자리를 피하는 모습, 클럽에서 태웅의 손을 슬쩍 잡자 뿌리치는 태웅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소연이 갓난아기인 태웅을 안고 있는 모습, 백호의 마취총에 맞고 쓰러진 어린 태웅의 모습을 한 클론을 캡슐에 넣고 포르말린을 채우는 소연의 모습이 떠올랐다.

소연은 허공에 자신의 몸을 내던졌다. 곧 두개골이 깨지는 듯한 둔탁한 소리가 오리엔티스 기지에 울려퍼졌다.

Continued to ep.16

LAHOE HYUN & THE MANTA STORY

https://themantastory.com
e-mail : copyright_dept@themantastory.com
© 2024 TheMantaStory, Inc. All right reserved.